"회복하나 싶더만" 구도심 상가 공실↑… 신도심은 회복 '희비'

광주 동구 충장로 한 상가에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다. '호남 최대 상권'이었던 충장로 상권은 중대형상가 공실률이 28.0%에 달하는 등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뉴시스

'호남 최대 상권' 충장로 중대형 공실률 26.42%
전남대 일대 38.05%… 빈 점포 줄어가다 반등
상무지구 작년 3분기 19.03%→올해 12.7% 감소

개선되는 듯 보였던 충장로와 전남대학교 등 광주 구도심 상권의 상가 공실률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빠르게 빈 점포가 늘어가던 상무지구는 공실이 크게 감소하는 등 구도심과 신도심 상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광주지역 주요 상권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올해 1분기 16.22%로 집계됐다.

광주 공실률은 2023년 4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17.57%→17.01%→16.01%→15.43%로 매분기 감소하다 최근 2분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대형 상가는 규모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30㎡(약 100평)를 초과하는 상가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지역 경기 상황과 해당 상권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호남 최대 상권'이라 불리던 충장로·금남로의 경우 지난해 1분기 31.02%를 기록한 이후 4분기 24.36%를 기록, 확연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 들어 다시 26.42%까지 치솟으며 빈 점포가 늘고 있다.

충장로와 함께 지역 대표 상권 중 하나로 꼽히던 전남대 상권 역시 2023년 4분기 48.7.%로 정점을 찍은 뒤 작년 3분기 35.14%로 개선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4분기 37.71%로 공실률이 다시 늘기 시작하더니 올 1분기에는 38.05%까지 증가했다.

먹자골목 상권이 조성된 금호지구의 상가 공실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1분기 7.72%에 불과하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분기 19.07%까지 급증, 올 1분기 18.58%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광주 대표 신도심 상권인 상무지구는 공실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무지구 공실률은 지난해 3분기 19.03%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15.76%를 기록, 올해는 12.70%로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광산구 송정동지구는 최근 3분기 13.54%→9.78%→4.80%로 공실률이 급속도로 줄었고, 인근 우산동 상권도 9.12%→9.77%→4.69%로 점차 침체기를 벗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권철 기자

광주 우치동물원, 아기 물범 '몰랑이'로 확정
시민 투표로 이름 선정… 부드럽고 귀여운 이미지 담아

우치동물원에서 태어난 아기 물범의 이름이 '몰랑이'로 확정됐다.

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 5일과 6일 우치동물원 해양동물관에서 진행된 현장 스티커 투표 결과, 아기 물범 이름이 '몰랑이'로 최종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몰랑이'는 부드럽고 둥글둥글한 아기 물범의 외형을 잘 표현한 이름으로,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이 부각돼 가장 많은 표를 획득했다.

앞서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된 이름 공모전에는 총 1270명이 참여했으며, 시민 선호도가 높은 '몰랑이', '초아', '물콩이' 3개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

최종 결과는 우치공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후보 이름을 제안한 시민 3명에게는 우치공원관리사무소 홍보물 등 기념품이 제공된다.

성창민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아기 물범 이름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동물 간 교감이 깊어지는 계기가 됐다"며 "몰랑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사상 사고 낸 화물차 기사, 면허취소 소송 패소

도로 위에 뛰쳐나온 개를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 사상 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지나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화물차 기사 A씨의 패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화물차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전 충남 한 편도1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택시를 충돌했다.

A씨는 갑작스럽게 전방에 나타난 개를 뒤늦게 발견, 조향 장치(핸들)을 지나치게 왼쪽으로 돌려 이 같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동승자 1명이 숨지고 택시 기사도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상 사고를 낸 점, 중앙선 침범 사실 등을 들어 A씨에게 벌점 총 135점을 부과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연간 누적 벌점 121점)을 넘기면서 전남경찰청은 A씨의 1종 대형·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행정심판 청구마저 기각되자 A씨는 이번 행정 소송을 냈다.

A씨는 "개가 갑자기 튀어나와 스스로도 모르게 핸들을 조작하다 난 사고다. 교차로 신호위반 1차례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해 벌점이 부과된 점, 생업을 하려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A씨가 받은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면허 취소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 도로에 나타난 개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 과실이 크다. 사망자와 중상자가 발생하는 등 결과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면허 취소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만한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승원 기자

광주·전남 올해 첫 SFTS 환자 발생… "야생진드기 조심"
동부권 거주 80대 여성, 발열·딱지 생긴 뒤 확진

광주·전남에서 올 들어 첫 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

9일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발열과 가피(딱지) 증상을 보인 80대 여성(전남 동부권 거주)을 대상으로 혈액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SFTS 양성환자로 최종 확인됐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된다. 광주·전남에선 해마다 10~20명, 전국적으로도 150명 안팎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2013년 첫 SFTS 환자가 보고된 후 최근 10여 년간 1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주로 야생진드기 활동이 활발한 5~9월 야외 활동이 많은 중장년, 면역력이 약해지는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했다.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리면 최소 4일에서 15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함께 오심(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위장관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치명률이 높은 만큼, 봄철 밭작물이나 임산물(고사리 등) 채취작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야외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야외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 ▲돗자리 사용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벌레 물린 상처 확인 ▲긴팔·긴바지·장갑 착용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올해 SFTS 첫 사망자는 경북 김천에서 발생했다. 쑥을 채취하던 70대 여성이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6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지역별로는 경기 1명, 전북 1명, 경북 2명, 제주 1명, 전남 1명이다. /전민규 기자

선상 혈투극… 동료 둔기 공격에 흉기 휘두른 60대 선원 징역7년 구형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둔기로 공격하는 동료 선원에 대항하다, 흉기까지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선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9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김모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매우 큰 상처와 출혈을 발생시켰다. 그러나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단순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21일 오후 전남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안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60대 동료 황모씨를 향해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김씨는 식당 등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황씨에게 반말로 고함치거나 욕설을 하며 위협적 언행을 했다.

이에 모멸감을 느낀 황씨는 배로 돌아와 미리 흉기 2자루와 둔기를 준비, 김씨와 만나 언쟁과 몸싸움을 주고받았다.

황씨가 둔기를 휘두르며 머리를 비켜맞게 되자 김씨 역시 반격했다. 몸싸움 과정에서 김씨는 황씨가 가져온 흉기를 집어 들고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 법률 대리인은 "밤에 혼자 있던 상황에서 황씨로부터 둔기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대항하기 위해 한 행동이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당시 상황에 비춰 황씨의 공격을 그대로 감내했을 경우 김씨 역시 생명에 위협이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뉴시스

전남대, 14~18일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행사

전남대학교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14일부터 18일까지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행사는 민족·민주화성회 기간과 5·18항쟁 기간으로 나눠 진행한다. 1980년 당시 시민들이 보여준 공동체 의식과 대동정신을 되새기는 헌혈 나눔·주먹밥 나눔·민주평화대행진 등의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민족·민주화성회 기간인 14일에는 5·18 굿즈 디자인 공모전, 그날의 벽화 그리기, 릴레이 헌혈 나눔, 오월 영화 상영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16일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전남대학교 제45주년 5·18 기념식, 대동 주먹밥 나누기, 대학구성원 민주길 투어가 열린다.

5·18 항쟁 기간인 17일에는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금남로까지 이어지는 민주평화대행진이 펼쳐진다.

이 행진은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이 된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출발, 항쟁의 마지막 무대였던 금남로까지 도보로 이어지는 행사이다. 행사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전남대학교 서울동창회 소속 졸업생들이 교내 민주길 투어에 참여한다.

/오철수 기자